

프랑스국립도서관 필사본장서부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 연구

Research on Korean Rare Books in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한 지 희 (Han, Jihee)*

김 효 경 (Kim, Hyo-Kyoung)**

이 혜 은 (Lee, Hye-Eun)***

◁ 목 차 ▷

- | | |
|-------------------|--------------|
| 1. 서론 | 3.2 간행시기별 현황 |
| 2. 한국 고문헌 장서의 형성 | 3.3 판종별 현황 |
| 3. 한국 고문헌의 서지적 특징 | 4. 결론 |
| 3.1 주제별 현황 | <참고문헌> |

<초 록>

본 논고는 프랑스국립도서관 필사본장서부(Département des Manuscrits)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을 실물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필사본장서부에서 한국 고문헌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자료는 모두 137종 316책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중 3종 10책은 중국과 일본의 고서였으며 한국 고문헌 134종 306책 가운데 낱장의 부적 등 8종 28장을 제외한 126종 278책을 연구대상 자료에 포함하였다. 이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경부(經部)가 12종 34책, 사부(史部) 60종 106책, 자부(子部) 46종 91책, 집부(集部) 8종 47책이 소장되어 있다.

간행시기별로는 공민왕 19년(1370) 간행된 『육조대사법보단경』부터 20세기 간행된 『관보』 등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가 한국에 체류하며 수집활동을 하던 19세기 후반의 장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판종별로 살펴보면 목판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외에도 금속활자본 18종, 필사본 23종 등이 소장되어 있다.

1370년 간행된 『육조대사법보단경』과 흥덕사에서 간행한 금속활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 특히 주목된다. 또한 자서, 운서 및 역학류(譯學類)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집서자인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가 어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집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동안 프랑스국립도서관의 한국 고문헌은 『의제』나 『직지』를 중심으로 조사되었고 혹은 일부 연구자에 의한 부분적인 조사만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동서양의 귀중한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는 프랑스국립도서관 필사본장서부의 한국 문헌에 대하여 최초로 이루어진 실물 전수조사라는 의미가 있다. 이 연구가 관련 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要語: 프랑스국립도서관, 필사본장서부, 한국 고문헌,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 직지

*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jhhan82@korea.kr) (제1저자)

**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kimhyo777@korea.kr) (공동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elee@sookmyung.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7년 3월 10일 ■ 최초심사일: 2017년 3월 18일 ■ 심사완료일: 2017년 3월 24일

<ABSTRACT>

This paper studies and analyses Korean rare books preserved in the Département des Manuscrits de la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The collections categorized as Korean rare books include 137 titles and 316 volumes in the Département. As 3 titles and 10 books are found to be Chinese and Japanese rare books, 126 titles and 278 volumes are investigated excluding sheets of talisman with 8 titles and 28 volumes.

Examining these by subjects, there are 12 titles and 34 books of Classics, 60 titles and 106 books of History, 46 titles and 91 books of Sciences and Arts, and 8 titles and 47 books of Literature.

By publishing period, they range from *Yukjobeopbodangyeong* published in 1370 to *Kwanbo* (Government Gazette) in 20th century. Especially most of the books were published in late 19th century when Victor Collin de Plancy stayed in Korea for collecting books.

Woodblock printed books make up the greatest portion of Korean rare book printing type, whereas there exist 18 metal printed books and 23 manuscript ones.

Judging from the fact that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and syllable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take up a big part of the collec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Victor Collin de Plancy collected them with deep interest in linguistics.

Research on Korean rare books in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were focused on *Uigwe* (Ceremony manual) or *Jikji*, and only some researchers partly studied before. This research has special meaning that total Korean collections preserved in Département des Manuscrits are investigated for the first time.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provides a foundation on related research.

Key words: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Département des Manuscrits, Korean rare books, Victor Collin de Plancy, *Jikji*

1. 서 론

한국과 프랑스가 정식 국교를 수립하기 이전부터 프랑스 신부들의 한국 활동을 통하여 프랑스에는 한국 문화가 소개되었다. 1886년 정식으로 국교가 수립되고 프랑스 공사관이 들어선 후 많은 프랑스인들이 한국의 고서 등 한국 문화재들을 수집하여 프랑스에는 상당수의 한국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프랑스 내에 현존하고 있는 한국 고문헌들 중 프랑스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에 소장된 자료들은 조선왕실의례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으로 인하여 특히 주목받았으나, 의례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대강의 현황만이 소개된 상황이었다.¹⁾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은 필사본장서부(Département des Manuscrits)에 소장되어 있다. 필사본장서부는 왕실도서관(la bibliothèque des rois de France)의 자료들을 기본으로 구성된 곳으로 동서양의 귀중한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²⁾ 이 논고는 프랑스국립도서관 필사본장서부에 소장된 자료 중 한국 고문헌을 실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장서의 특징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한국 고문헌 장서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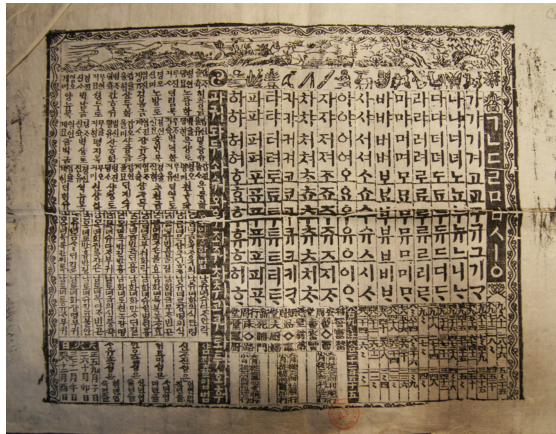
<그림 1> 콜랭 드 플랑시
장서표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한국 고문헌으로 분류하여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총 137종 316책이다. 이 가운데 Coréen 67 『전운옥편(全韻玉篇)』 2권 1책은 1890년 상해의 적산서국(積山書局)에서 간행한 중국서이고, Coréen 297 『동의보감(東醫寶鑑)』 8책은 가경 2년(1797) 청(淸)의 필구본당(必究本堂)에서 간행한 중국서이다. Coréen 863 『정덕조선신사등성행렬도(正德朝鮮新使登城行列圖)』는 일본에서 간행한 행렬도를 영인한 것이다.

8종 28장의 낱장 자료는 대략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첫째, 한글표기와 궁합법, 삼재법 등이 표기된 목판의 쪽지이다. 모두 7장이 소장되어 있는데 구성은 모두 대동소이하다. 우측에는 가가거겨고교구규그기ㄱ의 한글표기가 되어 있고, 좌측에는 혼인궁합법, 삼재출입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1) 이진명, “프랑스 국립도서관 및 동양어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학 자료의 현황과 연구 동향,” 『국학연구』 2(2003).

2) http://www.bnf.fr/fr/la_bnf/dpt_mss.html [cited 2016.10.15.]



<그림 2> 한글표기 등이 수록된 목판쪽지



<그림 3> 한글 표기 삼재부

또한 황구무강 수천지경(黃耆無疆受天之慶)이라는 글귀 아래에 한글표기가 수록된 날장 쪽지 네 장도 함께 소장되어 있다.

둘째, 부적과 다라니 등의 쪽지이다. 그 중 한 장을 살펴보면 목판으로 찍은 삼재부(三災符)인데 “한 장은 붙이고 한 장은 가져서 (삼재를) 예방하라”고 적혀있다. 산스크리트어로 표기된 날장 목판 자료가 여덟 장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한 장의 표제는 ‘불설팔만대장경목록(佛說八萬大藏經目錄)’으로 강화 전등사 개판(江華傳燈寺開板)이라는 간기가 적혀있다. 아울러 ‘도장오악진형도경배오악형도(道藏五岳眞形圖鏡背五岳形圖)’ 한 장, 붉은 색 그림 부적 두 장이 소장되어 있다. 함풍 3년(1853) 양주(楊州) 덕사(德寺) 장판(藏板) 부적 한 장과 석가여래불 필사 그림 한 장도 소장되어 있다.

이 밖에도 광서 17년(1891)에 간행된 24절기를 나타내는 날장 시헌력과 ‘신묘년예배단(辛卯年禮拜單)’ 등이 소장되어 있다.

한국 고서의 장정은 서양식으로 개장하였고, 콜랭 드 플랑시가 수집한 책에는 갈(葛)자를 표시하였다. 콜랭 드 플랑시의 한자 이름인 갈림덕(葛林德)의 ‘葛’과 ‘EX LIBRIS COLLIN DE PLANCY’라 적혀있는 장서표를 붙였다.

조사된 자료 중 모두 32종의 자료에 콜랭 드 플랑시 장서표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국립도서관 한국 고문헌 장서 형성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 1853~1922)이다.

콜랭 드 플랑시는 1887년 초대 주한 프랑스 대리공사로 부임한 이후 10여 년간 프랑스 총영사 겸 대리공사로 한국에 체류했고 이 기간 동안 한국 문화재를 수집하는 데에 큰 관심을 가졌다. 또한 통역으로 한국에 왔던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에게 현재까지도 한국학 연구의

필수적인 참고자료인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를 간행토록 하기도 하였다. 콜랭 드 플랑시가 수집한 자료는 프랑스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뿐만 아니라 국립기메동양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Guimet), 대학언어문명도서관(BULAC, Bibliothèque universitaire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세브르국립도자박물관(Musée national de céramique de Sèvres) 등에 소장되어 있다.

콜랭 드 플랑시는 1886년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조불수호통상조약(朝佛修好通商條約)의 비준 문서를 교환하기 위하여 처음 한국에 왔다. 비준서 교환은 1887년 5월 30일에 이루어졌는데 이후 1887년 11월 9일 초대 주한 프랑스 대리공사로 임명되어 1891년까지 서울에 체류하였다.³⁾ 또한 1891년 일본 도쿄의 영사로 임명되어 한국을 떠난 플랑시는 모로코 탕헤르(Tanger)의 영사를 단기로 역임하였고, 이후 1895년 총영사 겸 주임공사 자격으로 다시 서울에 와 1906년까지 머물면서 도서와 도자기 수집을 계속하였다. 플랑시가 한국 자료들을 구입한 정황은 당시 한국에 체류했던 지리학자 샤를르 바라(Charles Varat)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서울에서 나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 콜랭 드 플랑시씨는 어느 불란서 여행자가 매일 아침 불란서 공사관에 자리 잡고서 이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의 견본을 구입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아침 일찍부터 상인들이 때를 지어 오면 조선민속학적 견지에 따라 물건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내 임무이다. 외국에서 온 상품은 가차없이 제외된다. 다행히 콜랭 드 플랑시씨는 그가 매일 불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선인 비서들을 내 밑에 두어 일을 돕게 해 주었다. 이들이 나로서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물건들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가격 흥정도 맡아한다. 상인들은 때로는 엄청난 가격을 부르거나 이쪽의 제의를 거절하곤 하지만 흥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날이면 다시 와 전 날 했던 조건을 수락하니까.

오후에 우리는 불어를 하는 비서들과 함께 서울을 누비며 민속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눈에 띄는 대로 사들인다.”⁴⁾

플랑시의 모교인 동양어학교의 졸업생들은 대부분 외교관이나 통역관으로 부임하였고 이들은 부임한 현지의 책을 수집하여 보내었는데 플랑시도 1889, 1890, 1891년 세 차례에 걸쳐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그의 모교에 보냈다.⁵⁾ 현재 동양어학교 도서관에는 약 630종 1,400여 책의 한국 고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프랑스 내의 가장 큰 규모이다.⁶⁾

3) 마르크 오랑주, “콜랭 드 플랑시와 프랑스 자문관들,” 『서울의 추억: 한불 1886-1905』 (서울: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6), 92.

4) 다니엘 부셰, “한국학의 선구자 모리스 꾸랑 上,” 『동방학지』 51(1986), 157-158.

5) 이진명, “프랑스 국립도서관 및 동양어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학 자료의 현황과 연구 동향,” 『국학연구』 2(2003), 206-209.

6) 이들 자료는 동양어학교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82년, 2002년에 걸쳐



<그림 4> 앙리 베베르 장서표



<그림 5> 청구기호 라벨

또한 프랑스는 1911년 3월 27-30일 한국, 중국, 일본 관계 소장품 883점을 드루오 경매장(Hôtel Drouot)에서 경매에 붙였다.⁷⁾ 이 컬렉션의 주를 이루는 것은 700여 점에 달하는 한국의 것이었는데, 이 가운데 몇 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립도서관이 구입했다. 이 때 보석상인 앙리 베베르(Henri VEVER, 1854~1943)는 『직지심체요절』, 『육조대사법보단경』 등의 한국 고서를 구입하였다. 1943년 앙리 베베르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유언에 따라 유족들은 1950년 이를 프랑스국립도서관에 기증했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의 표지 이면에는 콜랭 드 프랑스의 장서표와 앙리 베베르의 장서표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이 장서표 위에는 1911년 3월 드루오 경매장에서 경매 될 당시의 경매 카탈로그 번호가 기록되어 있다.

탁본자료에는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원형주인(圓形朱印)의 'R.F./BIBLIOTHEQUE IMPERIAL/MSS' (지름 2.8cm)가 적혀있는 프랑스국립도서관 장서인(<그림 6> 참조)이 날인되어 있으며, 주로 탁본의 상단에 위치해 있다. 또한 장서인과 함께 날인 시기를 알 수 없는 둥근 방형의 'DON NO 1235'라고 적힌 장서인도 함께 날인되어 있는데(<그림 7> 참조), 이 장서인은 Coréen 3470, 3472, 3473, 3474 4종이 모두 동일하다. 앞 2종의 장서인은 Coréen 3469를 제외하고 모두 날인되어 있다.

청구기호는 탁본이 말려져 있는 종이 겉면에 둥근 흰색 라벨에 적혀 있다.

한편 탁본 축에는 'N.F./CHINOIS./3473'과 같이 청구기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확인하였는데(<그림 8> 참조) 이를 통하여 원래 중국서로 분류되어 있다가 한국 고서로 편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모두 617롤의 필름을 복제하였다. 또한 필름 스캔 작업을 실시하여 2016년 8월부터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서 원문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7) 이진명, “프랑스 국립도서관 및 동양어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학 자료의 현황과 연구 동향,” 『국학연구』 2(2003), 206-209.



<그림 6>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圓形朱印의 「R.F./BIBLIOTHEQUE IMPERIAL/MSS.」 장서인



<그림 7> 'DON NO 1235' 라고 적힌 장서인



<그림 8> 탁본 속에 붙어있는 중국서 청구기호



<그림 9> 탁본 보관 모습

고문서 자료들은 프랑스국립도서관 측에서 제작한 회색 폴더형 파일에 보관되어 있다.

6종 중 2종(준호구와 김익두 교지)을 제외하고 나머지 4종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2종 중 준호구의 경우는 우측 하단이 훼손되어 글씨를 판독하기 어렵다. 김익두 교지는 자료의 훼손이 가장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가자(加資)'가 적혀있는 부분의 마멸이 심해서 일부 글씨를 판독할 수 없으며, 문서 전체에 걸쳐서 배접이 되어 있다.

청구기호는 문서 뒷면에 둥근 흰색 라벨에 적혀서 붙어 있고, 문서 앞면의 좌, 우측 하단에 연필로도 기재되어 있다.

탁본 자료들은 프랑스국립도서관 측에서 제작한 포갑 상자 속에 종이에 쌓여서 보관되어 있는데 (<그림 9> 참조) 탁본을 배접해서 만들어 놓은 족자의 보관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권서(卷緒)에

달려있는 술도 비교적 훼손 없이 잘 보관되어 있다. 다만 표죽(標竹) 부분이 탈리는 과정에서 일부 꺾여서 양 끝부분이 찢어진 곳이 있다.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의 보존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고서는 기존의 장정을 풀어 양장 형식으로 재제본 하였으나 고서의 내부는 잘 보존되어 있었다.



<그림 10> 제본 모습

3. 한국 고문헌의 서지적 특징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본 가운데 한국 고문헌으로 분류된 장서는 총 137종 316책 중 중국·일본서 3종 10책과 앞서 정리한 낱장의 부적 등 8종 28장을 제외한 126종 278책을 주제별, 간행시기별, 판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주제별 현황

한국 고문헌 126종 278책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경부(經部) 12종 34책, 사부(史部) 60종 106책, 자부(子部) 46종 91책, 집부(集部) 8종 47책이다.

<표 1>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주제별 분포

주제	현황(종)	비율(%)
경(經)	12	9.5
사(史)	60	48
자(子)	46	36.5
집(集)	8	6
계	126	100

3.1.1 경부

경부(經部)에는 12종 34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자서(字書)와 운서(韻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천자문』은 자부(子部)에 만주어로 병서된 『천자문』과 함께 2종이 소장되어 있고, 운서인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 『화동정음통석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 자서인 『전운옥편(全韻玉篇)』 등이 소장되어 있다. 아울러 역학서인 『박통사신석(朴通事新釋)』, 『중간노걸대(重刊老乞大)』, 『첩해몽어(捷解蒙語)』, 『역어유해(譯語類解)』 등을 볼 때 집서자인 쿨랭 드 플랑시가 어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춘추집주(春秋輯註)』 목판이 한 장 보관되어 있다. 조선 후기 학자인 고산 이유장(李惟樟)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춘추곡양전(春秋穀梁傳)』,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과 제가(諸家)의 설 가운데 요점만 취하여 편찬한 『춘추집주(春秋輯註)』 가운데 권제1의 제25-26장 목판 한 장이다.



<그림 11> 『춘추집주』 목판

3.1.2 사부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사부이다. 사부 가운데 주목되는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2.1 관보

의정부 관보국(議政府 官報局)에서 광무 9년(1905) 신연활자로 발행한 『관보』 1권1책이다. 표지명이 '대한형법(大韓刑法)'으로 되어 있어서 프랑스국립도서관에는 『대한형법』으로 등록되어 있다. 광무 9년(1905) 5월 29일 발행되었고, 민영환(閔泳煥)의 궁정록사(宮廷錄事)로 시작한다. 법률에 관한 사항이 60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의정부참정대신 민영환과 법무대신 이지용(李址鎔)이 칙령을 받았음[奉勅]이 기록되어 있다.

3.1.2.2 의궤류

순조 원년(1801) 정리자로 간행한 『화성성역의궤』, 한글 필사본 『덩니의궤』, 순조 29년(1829) 정리자로 발행한 『진찬의궤』와 고종 24년(1887) 정리자로 발행한 『진찬의궤』 등 모두 네 종의 의궤가 소장되어 있다. 네 종의 의궤는 모두 콜랭 드 플랑시의 장서이다.

한글본 『덩니의궤(整理儀軌)』 권제39는 프랑스 동양어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한글 필사본 『덩니의궤』와 세트인 것으로 보인다. 콜랭 드 플랑시는 13책의 『덩니의궤』를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본인 권제39를 제외한 12책을 프랑스 동양어학교도서관에 기증하였다.



<그림 12> 『덩니의궤』

권제39는 화성성역도(華城城役圖)로 화성전도, 행궁전도, 봉수당도 등 화성 성역뿐 아니라 기중기도, 녹노도, 유형거도 등의 도구들을 그려 놓았다. 이어서 '각항일시'에는 시간에 따른 경과를 기록하였다. 이어서 '감동이하동역인원'에는 역할과 맡은 자의 성명을 기록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소요인원을 표기하였다.

3.1.2.3 청양현 각사행하례목신정절목

광서 19년(1893) 7월에 의정부(議政府)에서 적어서 배포한 절목이다. 표지에는 각사행하례목신정절목(各司行下禮木新定節目)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 청양(靑陽)이라고 적혀있다. 지방에서 중앙 관아에 납부하는 예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폐단을 시정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국내에는 고산현(高山縣), 연기현(燕岐縣) 등의 각사행하례목신정절목이 소장되어 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3.1.2.4 지도류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우리나라 고지도는 'Coréen 73~102'까지의 28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Coréen 87~90'과 'Coréen 96~97'은 각각 하나로 묶여 있던 지도들이 분리되면서 지도 1장마다 청구기호를 붙인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고지도는 총 24종이 된다. 전체의 소장 양은 많지 않지만 학술적·문화재적 관점에서 수준이 높은 자료들이다.

특히 현재 주목되는 희귀본은 6종으로 이들 자료의 동일 계통 지도가 지도학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고 있고 유일본으로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된 것도 있으며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도와의 관계에서 제작 과정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있다. 그 중 지도 2점을 사례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관서전도(關西全圖)」(Coréen 82)

관서(關西)는 평안도를 가리키는 이름 중의 하나로 '관서전도'는 '평안도 전체의 지도'란 뜻이다. 세로×가로 크기가 218.8×162.0cm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도별 지도 중에는 가장 큰 편에 속하는 대형지도이며, 1770년에 영조 임금의 명을 받아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이 제작한 도별지도 계통이다. 현재 이 계통으로 알려진 도별지도는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에 소장된 경기도·강원도·함경남도·함경북도와 개인 소장의 「경상총여도(慶尙總輿圖)」 5장에 불과할 정도로 희귀본이며, 색상과 종이 등의 수준도 아주 높아서 2008년 12월 22일에 혜정박물관 소장 4점을 보물 제1598호로,

개인 소장 1점을 보물 제1599호로 지정하였다.



<그림 13> 「관서전도」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관서전도」의 색상과 종이 등의 수준 또한 보물로 지정된 혜정박물관 소장 4점과 개인 소장 1점과 차이가 없어 동일한 세트였다가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1776년에 이산(理山)에서 이름이 바뀐 초산(楚山)이 적혀 있어 신경준이 1770년에 제작한 최초의 원본은 아니다.

② 「영연도(嶺沿圖)」(Coréen 82)

‘영연도(嶺沿圖)’에서의 ‘영연(嶺沿)’은 경상도를 가리키는 ‘영남의 해안’이란 뜻으로 지도의 이름만으로 보면 ‘경상도의 해안을 그린 지도’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북단의 영해(寧海)부터 최서단의 하동(河東)·남해(南海)까지 우리나라 경상도의 해안뿐만 아니라 일본의 혼슈 서남쪽 일부-큐슈-유구(琉球)까지 합해서 그린 지도다. 이와 같은 형식의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은데, 더 중요한 사실은 경상도의 해안 모습이 정후조(鄭厚祚, 1758~1793)의 해주신본(海州新本) 계통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174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을 근대지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대형으로 그린 첫 번째 지도 제작자는 하동정씨 집안의 정상기(鄭尙驥, 1678~1752)이고, 그의 아들인 정항령(鄭恒齡, 1710~1770)과 손자 정원림(鄭元霖, 1731~1800) 그리고 증손자 정수영(鄭遂榮, 1743~1831) 등이 지속적으로 교정본을 만들었다.⁸⁾ 그리고 해주정씨 집안의 정철조(鄭喆祚, 1730~1781)가 정상기의 지도를 기

8) 오상학, “鄭尙驥의 『東國地圖』에 關한 研究: 製作過程과 寫本들의 系譜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초로 하여 크기는 같지만 내용이 더 자세한 지도를 1769년 안팎에 두 번에 걸쳐 제작하였다.⁹⁾

정후조는 정철조의 동생으로 1784년(정조 8)에 정상기와 정철조의 지도를 기초로 크기는 같지만 훨씬 자세한 '해주신본(海州新本)'을 제작했는데, 현재까지는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의 『동국팔로분지도(東國八路分地圖)』(1첩8절)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1첩10매) 2종만 조사되었다. 그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만주, 서쪽으로는 중국의 북경(北京)과 복건성(福建省), 동쪽으로는 일본, 남쪽으로는 유구(琉球)를 합한 『사예도(四裔圖)』를 제작하고, 『사예지(四裔志)』를 편찬했다고 한다.¹⁰⁾ 이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영연도』는 그 자체가 희귀본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정후조의 『사예도』와의 연관성 측면에서 살펴볼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3.1.2.5 고문서 및 탁본류

한국 고문서는 총 6종 6점이 확인되었다. 모두 국내 미소장 유일본들이다. Coréen 1011은 '교지(敎旨)'라는 제목과 '광서18년3월일(光緒十八年三月日)'이라는 발행년과 '시명지보(施命之寶)'가 날인되어 있지만 실제 문서 가운데에는 내용 없이 매화에 얹은 한 마리의 참새를 묘사한 '매작도(梅雀圖)'가 그려져 있다. 내용이 없이 '교지'라 쓰고 인장까지 날인된 것으로 보아 공명첩의 내용을 쓰기 전의 형식으로 추측된다.

탁본은 「천상열차분야지도」 1점과 「영조대왕관왕묘비(英祖大王關王廟碑, [1694-1776])」, 「숙종대왕관왕묘비(肅宗大王關王廟碑, [1695])」, 「정조대왕관왕묘비(正祖大王關王廟碑, [1785])」, 「진종대왕영릉비(眞宗大王永陵碑, [1785])」 4점이 확인되었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1395년에 만든 「천상열차분야지도석각(天象列次分野之圖石刻)」을 숙종대에 복각한 석각 천문도의 탁본이다. 현재 1395년에 만들어진 각석은 국보 228호로, 숙종대에 복각한 각석은 보물 83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모두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이에 대한 탁본은 국내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나머지 탁본 4점은 숙종·영조·정조의 어제어필로 만들어진 관왕묘비를 탁본한 것(3점)과 영조

학교 대학원, 1994), 9-12.

9) 이기봉, "정상기의 『동국지도』 수정본 계열의 제작 과정에 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20-1(2008), 56-88.

10) 오상학, "鄭尙驥의 『東國地圖』에 關한 研究: 製作過程과 寫本들의 系譜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 9-12.

의 장자인 효장세자(孝章世子, 1719~1728)의 묘비 전면부를 탁본한 것이다. 이 자료들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탁본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3.1.3 자부

자부에는 46종 91책이 포함되어 있다. 자부 가운데 주목되는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3.1 석가류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자부 석가류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자료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나 많은 선행연구¹¹⁾가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① 능엄경

태종 1년(1401) 당시 태상왕이었던 태조의 명으로 판각한 『능엄경』 10권 5책을 세조 2년(1456)에 인출한 것이다. 태종 1년 간행된 판본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보물 제759호)은 완전본이나 권1 서문과 권수 부분이 떨어져 나갔는데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본은 서문과 권수까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어 가치가 크다. 통도사에서는 권9, 10을, 기림사에서는 권2-4를 소장하고 있다.

1456년 학조(學祖)의 발문에 의하면 동궁빈 한씨가 선고비(先考妣)를 위하여 『능엄경』 25부를 인출하였다고 한다. 책 크기는 38 × 22cm, 사주쌍변(四周雙邊)으로 26.9 × 17.9cm의 반곽(半郭) 안에 8행 20자씩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육조대사법보단경

경술(庚戌)년 귀왕선사(歸王禪寺)에서 간행된 1권 1책의 『육조대사법보단경』이다. 사주는 쌍변이고 계선이 없이 10행 18자로 이루어졌다. 반곽은 17.0 × 12.8cm 책 크기는 22.6 × 15.1cm이다. 연화(緣化)는 지식(知識), 지천(智川), 정행(正行), 각자(刻字)는 삼중(三重), 성주(省珠), 각명(覺明), 연판(鍊板)은 지식(知識), 법견(法堅)이다. 공덕주에는 계림군부인(雞林君夫人) 김씨(金氏), 전라도안렴사(全羅道按廉使) 신원좌(辛元佐), 도순문사광록대부지문하성사(都巡問使

11) 이희재, “『백운화상초록지심체요절』과 조선 초기 활자 인쇄 문화,” 『서지학연구』 28(2004), 99-136. ; 남권희, 김성수, 이승철, 임인호,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직지』 원본 조사 연구,” 『서지학연구』 35(2006), 59-81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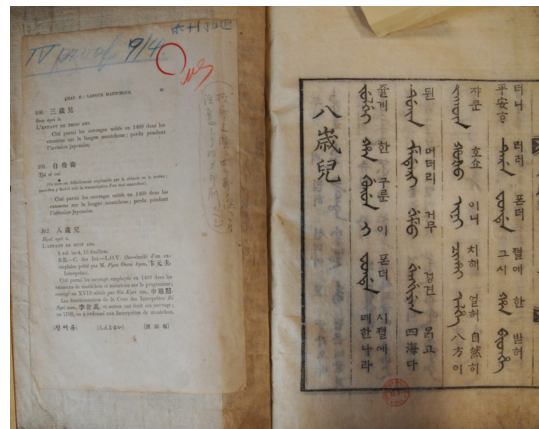
光祿大夫知門下省事) 이금강(李金剛)이 기록되어 있다. 이금강은 고려후기의 문신으로 1365년 전라도도순문사가 되었다. 따라서 간기의 경술년은 공민왕 19년인 1370년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문에는 구결이 묵서되어 있어 고려 후기 어학 자료로서의 가치도 크다.

3.1.3.2 어학류

콜랭 드 플랑시의 장서 가운데 역학류(譯學類)의 책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천자문은 만주어와 한문을 병서하였고, 『팔세아』와 『몽어노걸대』, 『참해몽어』는 몽고어를 대역(對譯)하였다. 『팔세아』와 『몽어노걸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길 수 있도록 장정되어 있다.



<그림 14> 『육조대사법보단경』



<그림 15> 『팔세아』

3.1.3.3 천문류

날장의 천문도가 여러 장 소장되어 있다. 성신도는 12지지(地支)와 24절기를 구분하여 별자리를 기록한 원형의 채색필사본이다. 『혼중성도』는 중앙에 태극무늬를 중심으로 일진(日躔)과 이십팔수(二十八宿)의 관계, 24절기와와의 관계 등을 12각형 모양으로 그린 채색필사본이다. Coréen 104로 분류된 절기표와 시헌서는 모두 고종 28년(1891) 목판으로 반포한 날장의 단자(單子)이다.

3.1.3.4 집부

집부는 8종 47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중 『열성어제』가 3종 포함되어 있다. 『열성어제』는 숙종 46년(1720) 간행된 목판본 1종과 현종실록자본으로 간행된 『열성어제』 및 『열성어제별편』이 소장되어 있다.

『동조탄신갱재시(東朝誕辰賡載詩)』는 철종 5년(1854) 대왕대비 순원왕후 김씨의 66세 생신을 맞이하여 철종이 지은 축수시(祝壽詩)와 정원용(鄭元容)을 비롯한 91인의 화운시(和韻詩)를 모아 편찬한 책이다.

3.2 간행시기별 현황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을 간행시기별로 살펴보면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 자료인 126종 278책 가운데 발행년을 알 수 없는 56종 79책을 제외한 70종 199책의 간행시기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2>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간행시기별 분포

간행시기	종수(종)	책수(책)	비율(%)
14C	2	2	3
15C	2	6	3
16C	1	1	1
17C	3	6	5
18C	23	78	33
19C	35	77	50
20C	3	28	5
	70	199	100

간행시기가 가장 오래된 장서는 공민왕 19년(1370) 간행된 『육조대사법보단경』이다. 14세기에 간행된 또 다른 장서는 고려 우왕 3년(1377) 간행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이다. 1377년 청주목 흥덕사에서 인쇄한 금속활자본이다.

15세기 간행된 자료는 태종 1년(1401) 간행하고 1456년 인출한 『능엄경』과 성종 19년(1488) 간행한 『육경합부』가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간행된 판본이고, 1932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된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영인본이 소장본 가운데 가장 후대에 간행된 것이다.

3.3 판종별 현황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의 판종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3>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판종별 분포

판종	종수(종)	책수(책)	비율(%)
목판본	72	159	57
목활자본	6	10	5
금속활자본	18	71	14
필사본	23	31	18
신연활자본	1	1	1
탁본	5	5	4
목판	1	1	1
	126	278	100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을 판종별로 살펴보면 목판본이 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목활자본은 모두 6종인데 순조 16년(1816)에 금릉취진자(金陵聚珍字)로 간행한 『해동명장전』, 생생자로 간행한 『생생자보』, 전사자로 간행한 『문창제군몽수비장경』, 학부인서체자로 간행한 『조선역사』, 훈련도감자로 간행한 『대전속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속활자본은 18종이 확인되었는데, 고려활자로 찍은 『직지심체요절』, 갑인자로 찍은 『후속록』 등이 확인되었다. 이를 활자별로 살펴보면, 갑인자 1종, 정유자 5종, 정리자 7종, 전사자 2종, 현종실록자 2종이 확인되었다.

이외에 필사본이 23종 31책, 탁본 5종, 신연활자본 1종과 목판 1점이 소장되어 있었다.

4. 결 론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은 1887년 초대 주한 프랑스 대리공사로 부임한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의 장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는 1887-1891년, 1895-1906년까지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의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다. 이후 1911년 파리에서 한국에서 수집한 소장품 700여 점을 경매하였고 이 가운데 몇 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프랑스국립도서관이 구입하였다. 또한 당시 한국고서 일부는 보석상인 앙리 베베르가 구입하였는데, 앙리 베베르가 사망하자 그의

유언에 따라 유족들은 이들 자료를 1950년 프랑스국립도서관에 기증하였다.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본들은 모두 서양식으로 재제본되어 있었으나 자료는 전반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본 가운데 한국 고문헌으로 분류된 장서는 총 137종 316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일본서 3종 10책과 낱장의 부적 등 8종 28장을 제외한 126종 278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본 126종 278책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경부(經部)가 12종 34책, 사부(史部) 60종 106책, 자부(子部) 46종 91책, 집부(集部) 8종 47책이 소장되어 있었다. 사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의궤와 지도류가 주목되었다. 또한 자부의 석가류에는 1370년 간행된 『육조대사법보단경』과 홍덕사에서 간행한 금속활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 소장되어 있어 가치가 높았다. 또한 자서, 운서 및 역학류(譯學類)의 장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집서자는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가 어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집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행시기별로는 공민왕 19년(1370) 간행된 『육조대사법보단경』부터 20세기 간행된 『관보』 등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콜랭 드 플랑시가 한국에 체류하며 수집활동을 하던 19세기 후반의 장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판종별로 살펴보면 목판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외에도 금속활자본 18종, 필사본 23종 등이 소장되어 있었다.

그동안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은 외규장각 의궤와 『직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 이외의 자료들은 극히 일부가 조사되거나 문헌의 제목 등만이 알려졌을 뿐 전체적인 실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직지』 외에도 많은 귀중본들이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의 장서를 통하여 당시 외국인들이 한국 고문헌을 어떻게 수집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동서양의 귀중본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는 프랑스국립도서관 필사본장서부의 한국 고문헌에 대하여 최초로 이루어진 실물 전수 조사라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각각의 자료들에 대해 서지학은 물론 고지도, 미술사,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남권희, 김성수, 이승철, 임인호.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직지』 원본 조사 연구.” 『서지학연구』 35(2006). 59-81.
- 다니엘 부셰. “한국학의 선구자 모리스 꾸랑 上.” 『동방학지』 51(1986). 153-194.
- 마르크 오랑주. “콜랭 드 플랑시와 프랑스 자문관들.” 『서울의 추억: 한불 1886-1905』. 서울: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6.
- 엄승희. “근대기 세브르국립도자박물관의 한국 도자기 소장품 수용 - 2015년 소장현황을 기점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9(2015). 261-286.
- 오상학. “鄭尙驥의 『東國地圖』에 關한 研究: 製作過程과 寫本들의 系譜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
- 옥영정. “한글본 『덩니의궤』의 서지적 분석.” 『서지학연구』 39(2008). 139-168.
- 이기봉. “정상기의 『동국지도』 수정본 계열의 제작 과정에 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20-1(2008). 56-88.
- 이은령, 이상현. “모리스 꾸랑의 서한과 한국학자의 세 가지 초상: 플랑시 문서철(PAAP, Collin de Plancy Victor)에 새겨진 젊은 한국학자의 영혼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44(2015). 75-141.
- 이진명. “프랑스 국립도서관 및 동양어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학 자료의 현황과 연구 동향.” 『국학연구』 2(2003). 183-221.
- 이혜은, 이희재. “폴레쥬 드 프랑스 소장 한국 고서의 현황과 활용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011). 235-251.
- 이희재. “『백운화상초록직지심체요절』과 조선 초기 활자 인쇄 문화.” 『서지학연구』 28(2004). 99-136.
- 프랑스국립도서관, 고려대학교 박물관. 『서울의 추억: 한불 1886-1905』. 서울: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6.
- 황정하. “『직지』의 간행과 전존 경위.” 『역사와 실학』 35(2008). 37-88.
- W.F. 샌즈. 『조선비망록』. 서울: 집문당, 1999.

